



주체의 민족관의 본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 주체의 민족관의 본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바른 민족관을 확립하는 건 오늘 현시대 변혁실천이 제기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건 이 문제가 개개민족들의 운명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의 변혁투쟁발전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주체의 민족관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현시대가 제기하는 역사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 민족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이 교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관의 본질적 내용을 정식화한 고전적 명제입니다.

이 명제에는 주체의 민족관의 내용이 두 측면에서 밝혀져 있는데요. 하나는 자주성이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온 민족이 단결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체의 민족관의 본질에 관해 한 측면씩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체의 민족관은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족의 자주성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써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근본속성을 말합니다. 해당 민족은 자주성으로써 타민족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모든 걸 자기 민족의 요구에 걸맞게 자기 민족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남에게 예속되어 지배를 받기 마련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되는 것처럼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으로 됩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본다는 건 자주성을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 요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민족구성원들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건 우선 그것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받음이 없이 자



가려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곧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대단결은 그 승리를 위한 원동력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공동의 변영을 이룩해나가는 문제는 민족대단결에 근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족이 단결한다는 건 민족공동의 요구를 첫 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걸 복종시키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이 하나로 똘똘 결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족의 단결이 이룩되어야 민족구성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주적인 권리를 가지고 참다운 생활을 누리면서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단결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각과의 주의주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공동의 변영은 고사하고 민족이 사분오열되어 종당에는 망하고 맙니다. 민족이 분열되어 나라가 망한 예는 역사에 수많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 결국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람이나 일부 계급, 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민족이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느냐 아니면 분열되어 망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족공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민족이 얼마나 굳게 단결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오직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공동의 변영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구성원들이 굳게 단결해서 투쟁할 때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명예도 떨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과 공동의 변영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은 개별적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적인 민족으로써 자기 민족구성원들의 지향과 요구에 걸맞게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그 위용을 떨치며 존엄 있는 민족으로 발전하려면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자기의 결집에 따라 자기 민족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걸맞게 모든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또한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담보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가져야 자기 민족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걸맞게 경제를 건설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이며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타민족들과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또한 국방에서의 자위를 담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족은 자주성을 가져야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을 가지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의 자주성을 고수해나갈 때만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민족의 운명을 성공리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을 가지느냐 못가지느냐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냐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근거의 하나가 있습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건 또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민족구성원들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

지 실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염원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동원되고 하나로 결집될 때만이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변혁투쟁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단결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가 있는 계급과 계층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서로 다릅니다. 이런 조건에서 온 민족을 하나로 굳게 결집시키려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걸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굳게 결집되어 단결된 힘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변혁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의 대단결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공동의 변영을 이룩해 나가려는 관점과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주체의 민족관의 본질에 관해 학습했는데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주체의 민족관으로 튼튼히 정신무장하고 그걸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7천만 겨레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이 있다는 걸 특히 명심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 정열을 다 바쳐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체의 민족관의 기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민족관의 기초를 옳게 밝히는 건 올바른 민족관을 확립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문제의 하나입니다. 그건 민족관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민족관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지며 민족의 운명개척을 사명으로 하는 참다운 민족관으로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해 독창적으로 밝혀진 주체의 민족관의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체의 민족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학설입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지도사상,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결론으로서 민족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변혁적인 민족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의 민족관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한다는데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집단인 만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건 사람들의 요구인 동시에 민족집단의 공동의 요구입니다.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해온 과정은 곧 민족의 자주적인 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땅히 그 민족구성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구성원들의 주인의 지위는 저절로 마련되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지위는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차례지거나 더욱이 그 누가 가져다주거나 선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할 때만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민족의 이익에 걸맞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변혁투쟁에서 자주성을 견지해야 하며 민족이 굳게 단결해서 단결된 힘으로 주인으로써의 지위를 굳건히 고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자기 민족의 이익에 걸맞게 변혁투쟁을 성공리에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관점과 입장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해 나갈 걸 요구하는 자주성의 원칙을 구현한 겁니다.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걸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민족관의 혁명성과 과학성의 담보가 있다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주체의 민족관의 기초는 민족에 대한 주체적 해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올바로 규정하는 문제는 민족관을 확립하는데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건 민족을 올바로 규정할 때만이 민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입장을 가지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 걸 다바쳐 투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서는

주체의 민족관은 우선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며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는 원리와 인류역사는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예측과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건 사람에게만 부여한 속성이며 이젠 전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써 자유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활동으로 그걸 실현해 나갑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원리를 사회역사에 구현해서 인류역사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의 역사라는 원리를 밝혔습니다.

진보적인 사회적 운동은 민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의해 일어나며 그들의 힘에 의해 추진됩니다. 인류발전과 함께 지금까지 벌여온 모든 사회적 운동은 민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었습니.

주체의 민족관은 주체사상의 이러한 원리에 기초해서 민족의 형성과 발전역사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집단인 만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건 사람들의 요구인 동시에 민족집단의 공동의 요구입니다.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해온 과정은 곧 민족의 자주적인 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족의 형성과정도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었고 민족의 발전과정도 사람들이 날로 높아가는 자기들의 자주적 요구를 더욱 원만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며 민족의 형성과 발

전과정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보는 건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이며 관점입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또한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변혁투쟁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 데 관한 주체사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변혁투쟁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건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변혁투쟁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입장을 의미합니다. 민족국가를 단위로 해서 진행되고 발전하는 자주적 운동인 변혁투쟁은 민족으로 하여금 자주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의 요구를 자신의 힘과 투쟁으로 끝까지 관철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혁실천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자주적 입장은 두가지 기본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 변혁투쟁에서 독자성을 견지함으로써 주인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적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주인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는데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건 민족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근본방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의 주인, 자주적인 주체는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민족구성원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의 운명개척의 주인은 마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 핏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말씀에도 있는 바와 같이 민족은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생활단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이루는 징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입니다. 민족을 규정하는데서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이 네 가지 징표를 다 같은 위치에 놓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설사 지역적 차이가 있고 문화생활에서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언어와 한 핏줄을 이어받고 민족의 넋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한 민족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형이론에서는 민족을 규정하는데서 언어, 지역,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성격의 공통성으로 보고 이 가운데서 하나만 빠져도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론대로 민족을 규정한다면 우리 민족과 같이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서 서로 다른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은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건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해외동포들도 다 우리 민족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족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역과 경제생활, 문화생활에서의 공통성을 절대화하는 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제도에서 경제생활과 문

화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핏줄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민족이며 한 겨레입니다. 그러므로 남에 있건 북에 있건 해외에 있건 우리 민족의 혈통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 민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핏줄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역적 차이와 경제생활, 문화생활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하나의 민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민족에 대한 주체적 해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문제 해결의 주체는 참다운 민족의 넋을 지닌 민족구성원들입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로써 그것은 민족구성원들의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주체적 이해로부터 같은 혈통과 언어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살 건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운명개척, 민족의 자주성실현에 다 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단결해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견해, 관점과 입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체의 민족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확립됐다는데 대해 학습했는데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주체의 민족관으로 튼튼히 정신무장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투철한 입장과 자세로 민족대단결을 위한 성업에 분기해 나서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성주의강좌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일~10일

주체의 민족관확립의 필요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민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과학적인 민족관을 확립하는 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 주체의 민족관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의 민족관확립의 필요성은 우선 주체의 민족관을 튼튼히 세워야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개별적인 사람들의 자주성도 실현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예측되면 그 민족구성원들도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건 모든 민족구성원들의 공통의 요구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민족의 자주성을 어떻게 보고 대하느냐 하는데 따라 민족의 생사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주체의 민족관은 모든 사람들이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족의 자주성이야말로 민족의 생명이라는 확고한 견해와 관점을 가질 때만이 자기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볼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위업이며 그건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때 실현됩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민족구성원들의 단결력과 헌신성은 자기 민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과 함께 서로 힘을 합쳐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관점과 입장에 확고히 설 때 높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이 단결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관점과 입장을 확고히 세워줌으로써 모두가 애국애족의 이념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을 발휘하게 합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자주의식과 함께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의 투쟁력과 의지력을 발양시키고 그것을 물질적 힘으로 전환시키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됩니다. 민족에 대한 주체적 견해, 관점과 입장을 떠나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또 웅성번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체의 민족관을 간직할 때만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고 변혁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체의 민족관을 튼튼히 세우는 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주체의 민족관을 튼튼히 세워야 하는 건 다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요구

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열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세에 의해 근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요구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상의 과제이며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핏줄과 언어, 그리고 문화와 지역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단일민족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건 전적으로 외세때문입니다. 민족의 분열은 남과 북,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겨레 모두에게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조국의 웅성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7천만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우리 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강토에서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통일은 애국이며 분열은 매국입니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와 한짜이 되어 통일을 방해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반통일세력을

주체의 민족관확립의 필요성은 우선 주체의 민족관을 튼튼히 세워야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의 민족관을 튼튼히 세워야 하는 건 다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척결하고 남과 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려면 통일의 주체를 이루는 민족구성원들의 통일열정과 의지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됩니다. 온 민족이 주체의 민족관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고 그걸 빛나게 구현해 나갈 때 통일위업의 주인으로써의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보다 더 힘차게 펼쳐나서게 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온 민족의 조국통일열망과 의지를 높이기 할 뿐 아니라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강화하기 위한 담보로도 됩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면 자주 원칙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의 단합을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남과 북의 전체 민중들과 해외교포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염원을 최우선시하고 그 실현에 모든 걸 복종시키며 민족의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이나 사회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민족은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결합된 공동체가 아니며 사회제도가 신앙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형성된 사회적 집단도 아닙니다. 사상과 이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우리 민족은 한겨레입니다. 제도적 차이를 갖고 동족을 갈라보고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분할해서 통치하는 걸



식민지적 지배의 변함없는 통치수법으로 삼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민족이 공동체적 전일성과 결합, 내적 연대를 강화하고 단합을 선도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초로 되는 건 사상과 이념, 사회제도의 공통성이 아니라 오직 민족의 공통된 이념, 통일된 강토위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적 이념입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확립에 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공동의 근본염원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겨레 모두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

할 데 관한 민족적 이념을 가지고 동족을 대하고 민족의 발전문제를 대할 때만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고 조국과 민족의 웅성번영을 다그치며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또한 평화통일의 원칙에서 동족간의 유혈을 피하고 민족적 숙원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도 됩니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유대를 잇고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인 만큼 동족간의 대결이나 유혈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주체의 민족관은 겨레 모두가 민족의 운명이자 자기의 운명이고 민족이 있고서야 자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과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대하며 숭고한 애국애족의 일념을 안고 분열과 전쟁을 추구하는 온갖 반동세력을 반대해서 견결히 싸워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모두가 주체의 민족관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간다면 반드시 통일의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 주체의 민족관을 왜 튼튼히 세워야 하느냐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주체의 민족관으로 튼튼히 정신무장하고 그걸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철저히 구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성주의강좌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1일~12일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데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혁운동의 승패는 당의 영도적 역할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혁운동이 역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변혁운동의 기관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이 변혁운동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감당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 변혁운동이 승리할 수도 있고 좌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각자들이 당을 중시하고 당을 결성하는 일에 것처럼 큰 심혈을 기울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빛나게 장식한 지난 항일투쟁시기 조국 광복위업을 이끈 정치적 참모부인 당을 내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혁명의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셨습니다.

우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독자적으로 당을 창건할 결심을 가지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벌이셨습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실정에서 독자적인 당을 내오는 문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것은 그때 국제공산당에서 제정한 일국일당제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국제당은 제6차 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의 총칙에서 국제공산당에 소속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매개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산당만이 국제당의 지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이로부터 국제공산당 동양선전부에서는 주체19(1930)년 5월 하바롭스크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를 열고 우리 나라 공산당조직문제에 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해주었습니다. 국제당은 그 결정에서 재만조선인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에 가입해서 중국 당원의

로써 활동하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일국일당제원칙이 제기되자 어찌까지만해도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한다고 열을 올리던 초기공산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속에서는 당해체명령을 발표하고 중국당에 전당하는 바람이 불기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당의 이같은 조치를 공명정대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형편에서 보통 용단으로써는 독자적인 당을 창당할 것을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국제당의 일국일당제원칙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행동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조선혁명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일신의 명예와 출세만을 생각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자주성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주체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조선혁명을 하자면 조선사람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결코 일국일당제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철한 노선을 견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국제당이 일국일당제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도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대열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국제공산당으로 하여금 일국일당제원칙을 내세우고 공산주의운동내에 여러가지 이색적인 요소들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공산당이 일국일당제원칙을 명시하게 된 것은 또한 당시 적들이 공산주의운동대열을 내부로부터 분열와 해시키려고 책동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국제공산당이 일국일당제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한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공산당규약은 일국일당제원칙만 제시했을 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독자적인 당조직을 결성하되 그 형식도 새롭고 독창적으로 다시 말해서 새로 조직할 당조직은 전에 있던 조선공산당의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새형의 당조직으로 만들고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꾸릴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드시 주재국의 당에 전당해야 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가 하고 전당후 그들의 혁명임무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당조직을 가지고 변혁운동을 한다고 해서 국제당의 일국일당제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신데 기초해서 조선사람으로써 독자적인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층당 조직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면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도도 능히 보장하고 또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지워진 국제적 임무도 원만히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독창적인 노선을 정하시고 당조직건설위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셨던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독자적인 당조직을 결성하되 그 형식도 새롭고 독창적으로 다시 말해서 새로 조직할 당조직은 전에 있던 조선공산당의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새형의 당조직으로 만들고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꾸릴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공산당이 조직된 것은 주체 14(1925)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침략자들의 가혹한 탄압과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해서 주체 17(1928)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그런데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다음에도 파쟁과 세력다툼만을 일삼았습니다. 화요파와 엠엘파는 재건운동을 포기하고 만주지방에 조직했던 중국마저 해체한다는 것을 선포했고 국내에서 당재건을 한다고 하는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주도권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것마저 노출되어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파쟁의

악습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해 가지고서는 혁명적인 당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선행 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공산당의 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의 당조직을 건설하며 종파와 사대의 타락에 물젖지 않은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내올 것을 결심하셨던 겁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당조직을 건설하는 것도 조급하게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층당 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것을 구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고 그에 토대해서 어떤 종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혁명의 참모부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방도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시기 위해 먼저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되고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지도사상, 영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라 하겠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토대위에서 주체 19(1930)년 7월 3일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카툰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동지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이제우동지들도 첫 당조직 성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전 **김일성**주석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그리고 각계종별 대중조직을 결성하시고 변혁운동을 영솔해 나가시던 날에 몸소 키우신 참된 전위투사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새로운 주체위업을 개척하기 위한 길에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육탄이 되

어 뚫고 나간 **김일성**주석님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런 동지들을 당원으로 선발하신 다음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카툰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당조직 결성모임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체 19(1930)년 7월인데 이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새형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렇게 나온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셨습니다. 이 명칭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의 첫 걸음을 떼었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첫 당조직 성원들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가 나오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와 변혁운동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를 받으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건설동지사》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어 두만강연안의 북부 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으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나온 당조직들은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서 항일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해 강철의 전위대로 단련되고 군중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의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데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